

기업들, '밸류업 프로그램' 예고에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의지 보여

SK이노, 작년 실적 51.4% 감소 등
자사주 소각 발표에도 주가 4.96% ↓
HD현대건설기계, 최초 소각 결정
삼성물산, 7677억 어차... 주가 7.7% ↑
기아, 5000억 신규매입 후 절반 소각



/유투이미지

기업들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는 등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주가는 각자 별로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기업들의 발 빠른 변화가 주목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위한 부가 조치도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하면서 기업들의 주주환원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전날 SK이노베이션은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을 열고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한 현금·현물 배당을 대신해 해당 가능 이익 범위 내의 자사주 491만9974주에 대한 소각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런데 지난해 SK이노베이션은 자사주 소각과는 다소 상충되는 1조1400억원대 유상증자를 진행해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이후 주가는 현재까지 33.73% 떨어진 상황이다. 지난해 실적도 영업이익 1조9039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51.4% 감소하는 성적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6일에도 4.96% 가량 떨어졌다. 한 개인 투자자는 "애초에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었는데 대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게 너무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업들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보이는 이유는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계가 선두로 시작한 주주환원 풍토가 훈풍을 타기 시작하면서 산업계도 발 빠르게 주목하는 모습이다. HD현대건설기계도 현대중공업에서 분사한 이래 최초로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전날 총 303억원 규모의 자사주 59만2000주를 취득한 뒤 소각하는 방안을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기존에 취득해 뒀던 자사주 85만 3697주도 오는 4월 30일에 소각할 예정

이다. 총 144만5697주를 소각하는 것이다. 다만 HD현대건설기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572억원으로 전년 대비 50.8% 이상 오른 호실적을 기록했다.

이밖에도 삼성물산, 기아, DL이앤씨 등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삼성물산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7677억원어치(4.2%)를 소각한다고 발표했고, 다음날 주가는 7.75% 오르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이후 현재까지 3.42% 오르며 신고가를 다시 경신했다.

기아 역시 공격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주주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이다. 기아는 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규 매입한 뒤 상반기 중 50% 소각하고, 이후 경영목표를 달성할 시 나머지 50%도 소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윤혁진 SK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기아는 상장사 중 가장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장 모범적인 회사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자동차주는 현재 금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아는 이달에만 11.46% 상승했다.

다만,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속세 완화 등의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내 가장 높은 수준인 60% (경영권 지분)의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업비트 FDS, 고객 자산 1200억 보전 성과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두나무, 거래패턴 학습 AI 도입

업비트의 실시간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이 1200억원 규모의 이용자 자산을 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는 자사 인공지능(AI) 기반 FDS가 누적 1200억원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차단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했다고 7일 밝혔다.

FDS는 이용자의 거래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해 패턴을 학습한 뒤, 이상 패턴과 유사한 거래를 잡아내고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은행, 증권사, 가상자산 거래소 등은 지능화된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FDS를 구축·운영 중이다.

통상 은행권에서 사용되는 FDS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송금·이체 받은 경우, 입금 후 30분간 해당 금액만큼을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인출·이체할 수 없다'와 같은 형태의 '규칙(룰)'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업비트 역시 2020년 11월 원화 입금 시 이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출금을 24시간 제한하는 '가상자산 출금 지연제'를 도입했다. 2021년 4월에는 첫 가

상자산 입금 시 72시간 이후 원화 출금을 허용하는 '원화 출금 지연 제도'를 적용했다.

두나무는 여기서 나아가 머신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룰 학습을 넘어 실시간 이상 거래까지 학습하는 FDS를 자체 개발했다. AI 기반 업비트 FDS는 모든 입·출금 시도를 실시간으로 검사하고, 특정 조건이 아닌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유형의 이상 거래를 탐지한다.

두나무 관계자는 "외부 공격자가 업비트 사용자 계정을 탈취하는 경우 획득한 인증 정보로 사용자 행세를 하게 된다"며 "또한 피싱범에게 설득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이용자는 외부 조종에 의해 스스로 자산을 내보내기 때문에 정상 거래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가 업비트 FDS에 특정 조건이 아닌 거래 패턴을 학습하는 AI를 도입한 배경이다.

실제 업비트 FDS는 최근 패턴 학습을 바탕으로, 군복무 중인 업비트 고객 자산가의 이상 거래 패턴을 탐지해 자산 탈취를 막았다. 자산 출금까지 시도했으나 업비트 FDS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포착돼 실패했다. /신하은 기자

KB증권, 저평가주 중심 프리셋 신규 오픈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 통해 선정

KB증권은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를 통해 최근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 저평가주 중심의 '기업밸류업 저PBR&저평가주' 프리셋을 신규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은 투자자 개인의 선호, 투자성향, 투자목적에 따라 개인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 서비스다.

최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예고에 따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가치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유사한 정책을 펼친 일본의 주가 상승 경험을 벤치마킹해, 정부도 주주 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을 그 핵심으로 하는 주가 부양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요국 대비 현저히 낮은 저PBR로 우리



/KB증권

나라 증시가 저평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를 배경으로 KB증권은 'KB증권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를 통해 현재 PBR이 낮아 저평가된 상장 보통주 중, 자사주 비율이 높아 향후 한국주식재평가 시 수혜가 가능한 종목을 빠르게 선정해 '기업밸류업 저PBR & 저평가주' 프리셋(투자전문가들이 사전 제시한 예시 포트폴리오)에 담았다. 여기에는 지주사, 금융,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 등을 포함했다. /신하은 기자

하나투어, 코로나19 부진 털고 '통 큰 배당'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익 흑자 전환
4년 만에 결산배당... 주당 5000원을 실적 정상화 기대에 목표주가 ↑

하나투어가 코로나19로 인한 부진을 완전히 털어내며 4년 만에 주당 5000원의 통 큰 배당을 결정했다. 올해는 완전한 실적 정상화가 될 것이라 기대도 높아졌다.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지난 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343억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나투어의 연간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선 것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116억원으로 전년 대비 258% 증가했다. 순이익 역시 607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4년 만에 결산 배당도 재개했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실적에 대한 결산 현금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000원을 결정했다. 하나투어가 마지막으로 결산배당을 실시했던 2019년 400원과 비교하면 12.5배 오른 금액이다.

앞으로의 배당에 대한 기대도 높다. 하나투어는 지난해 말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연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30~40%를 배당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자본준비금 14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측은 "코로나로 인한 업황 악화로 지난 3년간(2020~2022) 주주환원이 부재했음을 감안, 배당 규모를 확대한다"며 "2023년 결산 배당은 예외적으로 상기 배당정책을 초과하는 수준의 특별 배당금으로만 지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가는 하나투어는 올해 완전한

실적 정상화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당 기대까지 더해지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승했다.

현대차증권은 하나투어가 올해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목표주가는 기존 4만8000원에서 8만원으로 크게 높였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하나투어의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639억원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이 유력하다"며 "배당정책(연결당기순이익의 30~40%)에 따르면 경상적인 주당배당금은 1200~1600원으로 배당수익률 2.0~2.5%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하나증권 역시 하나투어가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7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예탁원 "지난해 자본시장 관련 대금 6.6경"

전년비 10.6% 증가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처리된 자본시장관련대

금이 6경6247조원으로 전년(5경9960조원) 대비 10.5%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일평균 처리대금은 269조원으로, 2019년 일평균 처리대금 189조원에 비

해 최근 5년간 약 1.4배 증가한 규모다. 자본시장관련대금의 규모는 주식·채권 등의 매매결제대금 6경2181조원(93.9%), 등록증권원리금 2184조원(3.3%), 집합투자증권대금 1326조원(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하은 기자

신한투자증권, 달러표시 한전 채권 판매

세전 은행환산수익률 연 5.721%

신한투자증권은 신한 SOL증권을 통한 달러표시 한국전력 채권을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채권은 한국전력이 과거 2020년 6월 15일에 달러로 발행한 채권으로 신용등급은 AA-(Fitch), A A(S&P)이며 2025년 6월 15일 만기이다. 해당 채권은 표면금리 1.125%로 매년 2회 이자를 지급한다. 세전 은행환산수익률 연 5.721%(2월 6일 기준, 잔존만기일자에 따라 변동 가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매일 국제신용등급



/신한투자증권

A등급 이상의 달러표시 채권을 선별해 모바일 특판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고객들의 글로벌 투자자산 니즈 확대를 반영해 다양한 해외채권 포트폴리오를 준비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